



배포 2024. 11. 12.(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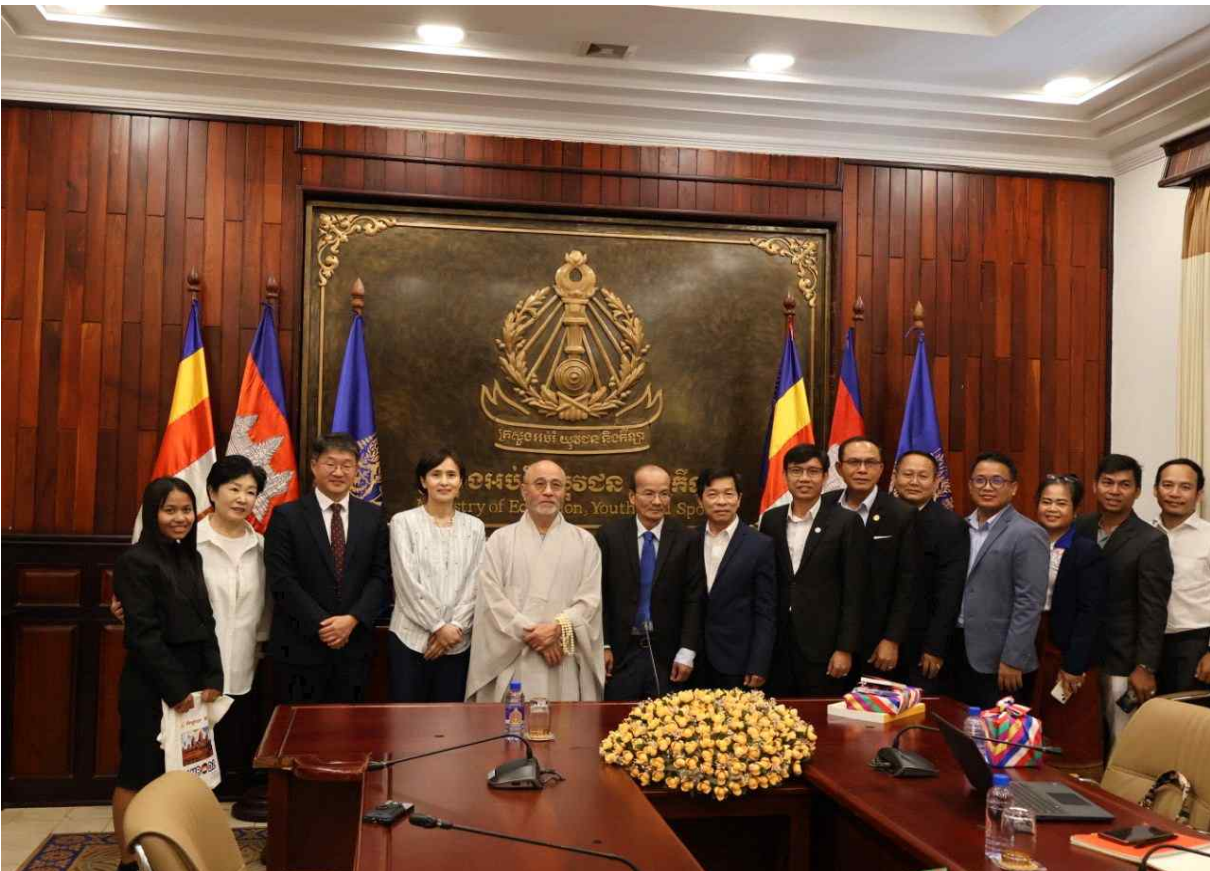
## 캄보디아, 한국어 교육 확대 의지 재확인

- 호치민시한국교육원과 국제한국어교육재단, 교육청소년체육부 썬 사미 차관보 초청 간담회 참석
- 한국어 채택교 확대, 교재 개발, 교원 연수 등 교육 협력 논의

- 대한민국 교육부 부설 호치민시한국교육원(원장 길호진)과 국제한국어 교육재단(이사장 임영담)은 11월 11일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썬 사미(Puth Samith) 차관보와 한국어 교육 협력을 논의하였다.
  - 이번 만남은 지난 8월 교육청소년체육부가 캄보디아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을 총괄하는 임영담 이사장을 공식 초청하면서 성사되었다.
  - 이 자리에서 양측은 11월 신학년부터 15개 고교에서 시작된 한국어 교육을 축하하고, 한국어 교육의 안정적 정착과 확대, 협력 방안에 의견을 나누었다.
- 특히 양측은 최근 캄보디아 내 증가하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을 재확인하고, 현재 개발 캄보디아 맞춤형 교재의 확대 개발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.
  - 썬 사미 차관보는 그간 캄보디아의 문화,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반영한 한국어 교재의 부재가 아쉬웠는데 앞으로 출판된 맞춤형 교재가 이를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하며, 향후 추가 교재 및 보조 교재 개발 등의 협력을 요청하였다.
  - 이에 임영담 이사장은 수준별 단계를 가진 맞춤형 교재의 확대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, 교원들의 교재 활용을 지원할 연수 등도 함께 개최하겠다고 하였다.
- 이후 양측은 인드라데비(Indradevi) 고등학교를 함께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을 참관하였다.

- 네악 쏘티어(Neak Sothea)교장은 “지난 11월 1일 신학년 개강과 더불어 한국어 교육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는데, 처음 35명에서 현재 50여명까지 확대되어 두 개반으로 분반을 고려하고 있다”며 한국어 확대 의지를 밝혔다.
  - 양측은 한국어 시청각 교육을 위한 보조 자료 개발과 환경 구축 등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.
- 한편 대한민국 교육부 부설 호치민시한국교육원은 지난 6월 교육청소년체육부와 MOU 체결, 캄보디아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착수, 7월 교원 선발 및 10월 방한 연수를 거쳐, 11월 15개 고교 한국어 수업 시작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,
- 향후 캄보디아 초·중·고에서 한국어 교육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국제한국어교육재단, 교육청소년체육부 등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하였다.

○ 교육청소년체육부 간담회





○ 인드라데비(Indradevi) 고등학교 방문



